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4.03

북한: 거침없는 복음의 행군

비밀리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신실한 북한 지하교인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매년 4만 권 넘게 북한 주민에게 배포되는 성경

성경을 받은 한 북한 지하교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조국 동포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널리 전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하교인도 성경을 받은 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건 세상이 최악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달받은 또 다른 지하교인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의 큰 문을 열어 주셨는데도 이 복된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날 그분의 말씀이 북한에 어떻게 전파되게 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북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안 선생의 공산당과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김정일 특수부대 소속으로 책임과 엄청난 특권을 동시에 갖는 영예를 누렸다.

1990년대 중반, 일명 ‘고난의 행군Arduous March’으로 알려진 대기

근으로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아사할 때도 안 선생의 가정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거리에 나가면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즐비했지만 우리 가족은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 선생이 말했다.

‘최고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이 북한 인민 모두의 의무이긴 했지만, 안 선생의 가족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열성으로 김 씨 일가를 숭배했다.

불길 속으로

군복무를 시작한 안 선생은 정예 부대인 ‘제6대대’에 배치되었다. 그의 첫 임무는 김 씨 일가의 요트를 경호하는 일이었다.

어느 밤, 안 선생과 그의 부하들이 잠을 자고 있던 막사에 불이 났다. 그때 안 선생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잠들어 있던 병사들의 안전이 아니라 벽에 걸린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였다.

북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무실과 교실 및 거실에 신격화된 김 씨 일가의 초상화를 걸어두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초상화가 제대로 진열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택 점검을 실시한다.

북한 주민들은 위급 상황에서 초상화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 안 선생 역시 당시 초상화가 불에 탔다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 말했다. 조사 결과 그가 초상화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그는 아마 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이다. 그는 말 그대로 불길 속에서 초상화를 구해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손과 머리에 극심한 화상을 입은 안 선생은 8개월 동안 병원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

당시 화재가 나기 얼마 전, 김정일 사망으로 온 나라가 애도에 집중하느라 그는 정부로부터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 대신 안 선생의 군대 상관인 의무 복무 10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는 안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했다. “그때 북한 당국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 선생이 말했다.



▲ 불타는 막사에서 김 씨 일가의 초상화를 건져내려다 손과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안 선생



탈출

2014년, 안 선생은 여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해 1년 동안 함께 살다가 한국으로 탈출했다. 둘이 같이 한국에 가는 것보다 따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판단한 안 선생이 먼저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여동생은 중국을 떠나기 전,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북한에 송환 후 수감되었다.

달리 여동생을 도울 방법이 없었으므로, 안 선생은 새로운 조국에 정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탈북민들은 정착 지원 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신원 조회를 받고, 남한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다양한 종교를 접해보도록 권유를 받는다. “기독교인들의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다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선생이 말했다.

약 4년 뒤, 안 선생은 여동생이 북한의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안 선생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면서 위로를 얻었다.

2019년, 안 선생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12주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의 한 심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탈북하여 태국까지 이른 북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다양한 돌봄을 받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다녀온 후 신학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라고 안 선생은 말했다.



▶ 안 선생은 한국으로 탈북한 후, 원래는 북한과 아무 관련 없이 살고 싶었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새 빛 가운데로

북한에 있을 때 안 선생은 기독교가 악한 것이라고 배웠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북한에 온 범죄자로 묘사된 정부의 선전 영화를 보기도 했다. 안 선생은 “선교사들은 의료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조선에 온 미국 스파이로 여겨집니다. 우린 그들이 진짜 아이들을 잡아가 장기를 꺼내 팔아먹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안 선생은 북한의 김 씨 일가를 향한 충성이 종교적 이단과도 같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는 북한 정부가 가르치는 의식과 신념이 기독교를 모방하려는 시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 씨 일가가 신성하고 영원불멸하며 모든 기도와 예배,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1948년 북한이 들어서기 전부터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가 강세였기 때문인지,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차용하려는 시

도까지 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각 위격이 동등한 삼위일체와는 다르게, 주체사상은 아버지 김일성과 조연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부인 김정숙, 그리고 아들 김정일을 세 명의 개별적인 ‘신’으로 떠받든다.

새벽 기도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인데, 주체사상도 이와 유사한 관습을 갖고 있다. 안 선생은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 동상이나 모자이크 사진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모이는 반면, 북한 주민들은 모여서 김 씨 일가의 어록을 연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안 선생은 말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생활 총화 모임에 참석한다.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주체 10대 원칙’을 따른다.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며




안 선생은 탈북민 수련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민 2세대 학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안 선생은 한국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통일이 되는 날, 북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라고 안 선생이 말했다.

아직 북한에 있는 안 선생의 어머니는 지난 해, 한국에 있는 안 선생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수감됐다. “이제 나한테는 복수할 수가 없으니 내 가족들에게 하는 거지요.” 안 선생이 말했다.

안 선생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안 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다.

2024년 3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	4	5	6	7	8
 브루나이 석유로 인해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시민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를	 리비아 성령께서 무슬림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어 많은 새신자가 생기도록	 필리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의 가족들을 위해	 네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딴 지역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로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격려할 기회가 허락되도록	
10	11	12	13	14	15
 이란 온라인 사역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로 양육할 수 있게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소에 갇혀 고립감을 느끼는 아프간 성도들을 위해	 중국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세워 양육할 수 있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잠비크 반란 때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도록	
17	18	19	20	21	22
 부르키나파소 가족에게 핍박받고 결혼을 강요당하는 기독교인 여성들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가 전역에 가정교회가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이집트 무슬림 공동체의 극단적인 적대감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을 위해	 미얀마 믿음을 부인하라고 압박 받는 팔라웅족의 11개 기독교 가정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4	25	26	27	28	29
 아제르바이잔 압박과 벌금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	 케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가족을 위해	 바레인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몰도바 투옥과 추방을 각오한 성도들이 지혜롭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금지해도 교회가 무슬림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1					
 소말리아 알샤바브의 계속된 공격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1 튀르키예 올해 2월, 지진으로 희생된 목회자 부부의 아들을 위해	2 나이지리아 이슬람교도의 공격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기독교인 과부들을 위해
8 이스라엘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은 폴린 아야드를 위해	9 레바논 시리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15 방글라데시 외딴 지역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16 튀니지 튀니지 무슬림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22 모리타니 개종자들이 체포나 투옥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23 지부티 더 많은 교회가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9 이라크 가족, 정부 및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한 개종자들을 위해	30 라오스 믿음 때문에 거부당하고 쫓겨난 판과 운 같은 성도들을 위해



북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 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주민 8%가 북한 안에서 성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0년까지 0%였던 수치가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성경은 지금도 북한 내부에 계속 들어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북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2%나 되는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지원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월 정기 후원을 통해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 지원하기
- 순교자의 소리 단파 라디오 복음 방송 및 선교 여행, 성경 밀반입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시 후원**하기
- 서울, 대전, 부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북한 사역 동역하기 (자세한 내용은 02-2065-0703 문의 요망)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북한사역'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북한'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2023년 10월 소식지에 이 선생의 짧은 간증이 실린 이후, 순교자의 소리는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이 선생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가 느낀 감정은 억겨움이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도 하면서, 북한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영원한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관해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선생이 중국의 한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던 그때, 이 선생에게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다. “집 밖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남편과 나는 정부 배급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생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이 선생이 말했다.

북한 정부는 수입이나 국제 원조를 거부했다. 대신 암묵적으로는 불법 밀수를 승인했다. 이 선생 같은 사람들에게 밀수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이 선생에게 중국에 사는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여자가 식량과 맞바꿀 수 있는 물품들을 밀수해 오라며 그녀를 설득했다.

그러던 중 어떤 여성이 북한 내지 깊은 곳에 있는 아이를 국경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이 선생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일주일간 동분서주했지만, 아이는 이미 죽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선생이 부탁받은 일을 다하자 그 여성은 약속했던 돈까지 챙겨 사라져버린 뒤의 일이었다.

이것이 그녀를 중국 한인 교회로 이끈 계기였다. 이 선생은 그 여자를 찾아 돈을 받아내고 싶었고, 목사와 집사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선생을 위해 기도해주었고, 그녀가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돈까지 나눠주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을 오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알려주면서 그 길에 있는 작은 교회로 안내해 주었다.

성장하는 믿음

이 선생이 오가게 된 새로운 경로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이후 4년 동안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었다.

2000년대 초반, 이 선생이 방문하던 교회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북한으로 성경을 가져가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성경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종신형이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선

생을 따라 밀수업에 뛰어들었다가 신앙을 갖게 된 올케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했고, 이 선생 역시 이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성경을 쌀포대에 담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게 포장한 후 북한으로 가져갔다. 집에 돌아온 이 선생은 남편과 함께 성경을 비닐로 싸서 마당에 파묻었다.

육신과 영혼을 위한 양식

음식이나 옷을 구하려 친척들이 찾아오면, 이 선생은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가능하기 위해 노력했다. “뭐든 생길 때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김일성보다 나를 더 신뢰하더군요”라고 이 선생은 말했다. 이 선생은 언제나 이 선물의 궁극적인 출처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친척들이 화를 내지만 않

는다면, 이 선생은 계속 친척들의 신앙을 키워나갈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격려해주었다.

2005년, 북한 정권은 원치 않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과 불법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부투하던 중,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밀수에 연루되면 가족 전체를 시골로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생의 밀수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밀고했고, 결국 온 가족이 추방을 당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추방은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이어졌다.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니 제자 양육이 더 쉬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곧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다.

◀ 이 선생은 2000년대 초반 북한으로 성경을 밀반입했고, 현재는 탈북민들이 한때 북한으로 밀반입되었던 존 로스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동역하고 있다.





▲ 마당에 성경을 묻고 있는 이 선생(재연 사진)



▲ 쌀자루에 성경을 숨기고 있는 이 선생의 올케 (재연 사진)

고아의 옷을 입은 천사

북한 당국이 어떤 밀수업자를 심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려 했다. 그 결과 이 선생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이 선생이 그간 중국에서 기독교인들과 접촉하여 북한으로 성경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면 그녀는 총살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체포 후 북한 비밀경찰은 한 여관, 창문에 철창이 달린 2층 방에 이 선생을 가두었다. 그때 이 선생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직 아버지께 갈 때가 아닙니다. 제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곳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감금 이틀째 저녁, 경찰은 이 선생에게 그날 밤 심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생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자신을 고문하리라는 사

실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 선생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선생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 선생은 심문관이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이 선생은 어린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아이는 곧바로 도망쳤다. “여관 옆에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아마 고아 중 한 명이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왔던 모양이에요”라고 이 선생은 회상했다. 이 선생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후 3개월 동안 이 선생은 당국을 피해 숨어 지냈다. 이 선생이 구금시설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이 선생의 가족은 결국 한국으로의 탈북을 결심했다.

하나님이 아끼는 딸

현재 이 선생과 남편은 한국에서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건, 북한에 있을 때 사상을 주입하는데 강제로 동원된 경험 때문이에요. 한국에 오고 나서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졌지요. 탈북민들은 이제 그런 단체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선생이 말했다.

김 씨 일가의 민족주의적 주체사상 또한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 북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이 선생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지켜주신 일들을 회상하며, 이 선생은 자신을 하나님이 ‘아끼는 딸’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길을 찾으면서 늘 신실함을 잃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혹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기회가 생기면, 이 선생은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하라고 당부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 가운데 심은 복음의 씨앗이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

2024년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 1기생을 모집합니다!

신약의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신실하게 고백할 때만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꼭 붙잡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개월의 지하신학교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증언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에 대한 깊은 진정한 의미를 매일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이 6가지 신앙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 신앙고백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각각의 훈련생들을 준비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자 부르심입니다.

지하신학교는 2개의 장소, 포천과 무주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6개월 과정:** 금요일 저녁 7시 ~ 토요일 오후 5시까지/월 1회(1박 2일 오프라인)
 - 포천 (4/12~13, 5/10~11, 6/14~15, 9/6~7, 10/11~12, 11/8~9)
 - 무주 (4/26~27, 5/31~6/1, 6/28~29, 9/27~28, 10/25~26, 11/22~23)
 - (주소나 구체적인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훈련비: 500,000원** (6개월 과정, 숙소/식사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02-2065-0703/010-3151-2065**

사도적 신앙 고백

01.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02.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03.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04.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0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06.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2024년, 탈북민들의 국악 공연 "존 로스 성경 역사극"에 동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공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서울/대전/부산/그 외 지역)
- **공연무대:** 음향, 분장, 조명(렌탈 포함)
- **촬영:** 공연 실황 영상 및 사진 촬영

위 분야에 동역하기 원하시면
010-3151-2065로 연락주세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 | | | | | |
|--------------------------|-----------------------|-------------------------------|-------------------|--------------------------|
| | | | | |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 「웹브란트」
15,000원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 | | | | |
|------------------------------------|-------------------------|-------------------------|-----------------------------------|
| | | | |
| 「21 - 콥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10,000원 |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 | | | | |
|-------------------------------|-------------------------------|----------------------|---------------------------------|
| | | | |
| 21c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 『조선어 스테디 성경』 30,000원 | 『조선어/쉬운 영어 성경』 (창세기/신약) 15,000원 |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